



재경 광주서중·일고 졸업생들로 구성된 국토종단팀이 1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5·18극립묘지를 참배한 후 옛 전남도청으로 향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온 국민이 함께하는 학생독립운동 기념일로”

광주 서중·일고 동문 230여명 국토종단

40~60대의 몸으로 국토를 종단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77년 전, 일본에 대항해 독립을 요구했던 선배들의 정신이 ‘광주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알리기 위해, 그때마다 운동화 끈을 조였다. 지난달 18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재경(在京) 광주 서중·일고 졸업생의 국토종단이 16일만인 2일 모교인 광주일고 학생앞 앞에서 종지부를 찍는다. 이들은 올해 처음으로 ‘학생의 날’(11월3일)이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승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도보 국토종단이란 야심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편무은(56·케이비백 대표) 대장은 “광주에서 시작했지만 전국·해외로 퍼져나간 1929년 학생 독립운동은 규모나 파급효과를 볼 때 ‘광주만의 것’이 아니었다”며 “그동안 지역사로 머물렀던 독립운동이 77년 만에 그 의미를 재조명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서울을 떠난 국토종단팀은 편 대장을 비롯, 김영규(63)·안승동(54)·양규철(53)·송진호(53)·한창안(53)·류병수(47)·서형기(47)씨 등 8명. 의료기기 사업을 하는 편대장은 물론, 가구 디자이너, 공무원, 자영업자 등 모두 직업을 갖고 있지만 이번 프로젝트

를 위해 잠시 직장을 쉬었다. 이들 8명은 낙오자 없이 362km 전 구간을 완주했다. 이들 뿐 아니다. 동문 224명이 한 개 구간 이상씩을 동행하며 전 구간을 걷는 국토종단팀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한 구간의 거리는 24~33km, 보통 10명 이상 졸업생이 참가했다.

지난달 22일에는 비가 내리는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찾아 그날의 역사와 함성을 가슴속에 담았다. 드디어 1일 오후 4시경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광장에 도착한 이들은 ‘교가’를 불렀다. ‘무등산 아침 해같이 빛나는 우리의 이상’으로 시작되는 교가를 부르며 나라의 독립을 부르짖었던 선배들의 정신을 되살렸다.

이들은 2일 오전 9시 다시 옛 전남도청에서 모교로 출발, 이날 열리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지난 1953년 ‘학생의 날’로 제정됐다가, 유신에 의해 국가기념일에서 제외됐다. 1984년 다시 부활했지만 광주일고 자체 행사로 전락했다. 국회는 지난 2월에는 ‘학생의 날’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로 변경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 여당서도 ‘오기 개각’ 반발

黨-靑 갈등 고조...한나라 “코드·보은 인사” 비난

노무현 대통령이 1일 단행한 외교 안보라인 인사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통합신당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정계개편과 관련, 당청 갈등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개각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공식적으로 “국정의 안정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한 인사”라고 긍정적

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는 통합신당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외교·안보 라인 교체에 노무현 대통령식 오기 인사의 전형이라는 반발 기류가 만만치 않다. 김한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안보·경제 등을 총괄하는 위기관리 내각 구성을 요청했는데도 노 대통령이 이를 외면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

각으로 당청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않았느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이 당의 정계개편 방향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예상되는 2일 의원총회를 앞두고 개각을 발표했다. 이 점에서 사실상 당내 통합신당파에 대한 선전포고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일 열리는 의원총회에

서 개각을 둘러싼 통합신당파와 재창당파간 정면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열린우리당 호남지역 의원은 “노 대통령의 코드 인사로 당청 관계가 더욱 어려워지고 정국도 시끄러워질 것”이라며 “이제 본격적으로 통합신당파와 재창당파간의 힘겨루기가 시작될 것이며 정계개편도 급류를 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나라당 등 야당은 이번 외교안보 라인 개각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코드·보은인사라는 비난과 함께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여당엔 원망, 야당엔 실망, 국민엔 절망을 안겨준 ‘3망 인사’라며 “김만복 국정원장은 코드인사, 송민순 외교부장은 부핵 문제를 잘못 다뤘는데도 영전시킨 참깨구리 인사,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불법대선자금 수수로 감옥까지 갔다 온 공을 감안한 보은인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도 “중차대한 시기를 헤쳐나가기에 크게 역부족인 실망스러운 개편”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이들의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통 일 이재정  
외교통상 송민순  
국 방 김장수  
국정원장 김만복  
외교안보라인 개각



이재정 통일 송민순 외교 김장수 국방 김만복 원장  
오는 18~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열리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강 정상과의 양자회담 일정을 감안, 이날 말께 인선할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노무현 대통령은 1일 통일부장관에 이재정(62) 민주평통수석부의장, 외교통상부장관에 송민순(58) 청와대 안보실장, 국방장관에 김장수(58) 육군참모총장, 국정원장에 김만복(60) 국정원 1차장을 각각 내정했다. <프로필 3면> 청와대는 후임 청와대 안보실장은



올해도 비야적 시위 ‘광주·전남 농민연대’ 회원들이 1일 FTA 협상 중단과 수매제 부활 등을 요구하며 전남도청 앞에 1천500여 가마(40kg)의 비 포대를 아적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무안=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北 “금융제재 해결 전제” 美 “대북제재 계속 이행”

6자회담 재개 이달말·12월초 예상

미국과 중국, 북한간의 6자회담 재개 합의 후 관련 당사국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6자 회담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일정(18~19일) 등을 감안할 때 이달 말 또는 12

월 초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5·6면> 북한은 1일 조건부 6자회담 복귀를 공식 발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6자회담 틀 안에서 금융제

재 문제를 논의해 해결한다는 전제 아래 6자 회담에 복귀한다”며 미국의 금융제재 해결을 복귀 조건으로 내걸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을 환영하지만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회담이 돼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를 위해 1~2주내에 국무부 중심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재 이행과 회담 준비 협의를 위한 특별반을 구성, 동북아시아에 파견할 것이

라고 손 매코믹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달 31일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포항공과대학교 56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 대주그룹의 미래를 함께 할 인재를 찾습니다

대주그룹 경력·신입사원 모집

구분	직종	학력	나이	기타
신입사원	경영관리	대졸	23~28	영어능력시험 80점 이상
	기술직	대졸	23~28	영어능력시험 80점 이상
	영업	대졸	23~28	영어능력시험 80점 이상
	인사	대졸	23~28	영어능력시험 80점 이상
경력직	경영관리	대졸	30~45	영어능력시험 80점 이상
	기술직	대졸	30~45	영어능력시험 80점 이상
	영업	대졸	30~45	영어능력시험 80점 이상
	인사	대졸	30~45	영어능력시험 80점 이상

www.dajou.com